

## IMF 관리체제 하의 멕시코 농업 동향과 농업정책의 변화

- 우리 나라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최운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글의 순서

- I. IMF 관리체제 전후의 멕시코 경제 동향
- II. IMF 관리체제 전후의 농업 부문 변화
- III. IMF 관리체제 전후의 농정변화
- IV. 시사점

멕시코와 우리 나라는 양국 모두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OECD에 가입(멕시코는 1994년, 우리 나라는 1996년)하였고 또 가입 초창기에 IMF 관리체제에 돌입(멕시코는 1994년 12월, 우리 나라는 1997년 12월)하였다. 더불어 양국에서 다같이 위기가 닥쳤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어려운 국정을 맡았다는 점과 IMF 관리체제하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는 유사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 12월의 멕시코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멕시코 농업이 직면하였던 문제점과 변화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 농업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양국이 아직까지 IMF 체제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IMF 체제하에서 도입한 정책 및 제도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에 직면하여 농업부문의 난국을 이

겨내기 위한 멕시코 정부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제한적이거나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 IMF 관리체제 전후의 멕시코 경제 동향

멕시코는 과거 세 차례 -1976년, 1982년, 1994년 12월- 금융·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난국을 경험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1994년의 금융·외환위기는 경제성장률의 심한 변동과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구조에다 인위적인 환율 안정과 고금리 정책 그리고 정정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멕시코는 결국 외화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 1995년 1월 31일 516억 달러에 달하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하였다<sup>1)</sup>. 한편 1994년 12월 취임한 세디요 대통령(Ernesto Zedillo)은 개혁지향적인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수출 촉진 등에 힘입어 1996년 2/4분기부터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제성장률은 1995년 -6.2%에서 1996년에는 5.2%로, 1997년에는 7.0%로 더욱 높아졌으며, 물가상승률, 실업률,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세에 들어섰음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 부문도 1996년에 1.2%, 1997년 상반기에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에 돌입하였다(표 1 참조).

---

1) 1992~1994년에 발생한 국제수지적자의 누계는 775억 달러였으며, 구제금융의 실제 지원규모는 IMF 대기성 차관 134억 달러 및 미국의환안정기금 135억 달러 등 총 273억 달러에 달했다. IMF 지원시기는 이사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할 때 1995년 2월 1일이다.

〈표 1〉 IMF 자금 지원 결정 이후 분기별 거시경제지표 추이

항 목	단위	1994	1995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구	백만명	91.2	-					93.7	-					95.5	97.2
GDP성장률	%	3.5	-0.7	-9.2	-8.0	-7.0	-6.2	-0.1	6.4	7.0	7.6	5.2	7.0		
1인당 GDP	US\$	4,148	-					2,702	-					3,500	-
농업성장률	%	2.0	-					-3.8	-					1.2	5.8
민간소비	%	-	-					-9.5	-					2.3	-
투자	%	-	-					-29.0	-					17.7	-
실업률	%	3.5	5.1	6.3	7.4	6.1	6.1	6.2	5.6	5.5	4.7	4.7	4.1		
수출	US\$10억	60.9	-					79.5	-					96.0	52.4
수입	US\$10억	79.4	-					72.5	-					89.5	50.3
무역수지	US\$10억	-18.5	-					7.0	-					6.5	2.1
경상수지	JS\$억	-297	-14	4	-5	-1	-16	1	4	-8	-15	-18	-		
금리	%	18.2	65.3	55.5	37.7	37.0	48.8	37.0	37.0	37.0	34.3	36.3	22.0		
외환보유액	US\$억	62	73	106	152	160	162	160	159	161	183	183	217		
총외채	US\$10억	142.6	-					153.8	-					163.9	160.0
환율	달러대비	3.45	6.78	6.24	6.38	7.68	7.68	7.53	7.58	7.54	7.89	7.89	7.88		
추가(BANAMEX)		2,376	1,833	2,196	2,392	2,779	2,779	3,072	3,211	3,236	3,361	3,361	-		

주: \*는 상반기 기준임. 금리는 28일 만기 채무부 채권(CETEs) 기준이며, 외환보유액, 환율, 실업률 및 추가지수 평균은 기말기준임.

자료: Banco de Mexico; 멕시코 통계청(INEGI); <http://www.eclac.org/espanol/Publicaciones/bal97/Mexico.html>.

## II. IMF 관리체제 전후의 농업 부문 변화

### 1. IMF 관리체제 이전의 멕시코 농업 발전 과정

멕시코의 농업발전은 토지개혁, 녹색혁명, 해안지대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멕시코 농업은 1940년대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 공업 우선 정책에 따른 농업부문의 정체를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1970년대 이후 세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의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 농업 성장률은 4.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저 성장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결과 주식인

옥수수 및 콩 등은 1960년대까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생산기반이 취약해 지면서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1982년의 외환 위기는 농업재건을 위한 노력조차도 후퇴시켰으며, 농업성장률은 -0.6%를 기록하였다.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부분의 비중은 1990년대 들어 7.5%(1980년대에는 8.1% 전후였음)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력 대비 점유 비율은 25% 수준으로 여전히 중요한 사회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총인구와 총취업인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부문 취업인구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OECD, 1997b: 3-32).

농업 구조에 있어서는 생산 양식과 경영규모에 있어 이중구조라는 문제가 병존하고 있다(日本, 農務省, Internet 자료).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스페인 식민지하의 토지소유제<sup>2)</sup>에 기인하는 한편, 공업화 우선 정책에 따른 농업의 부수적 발전 정책에 기인한다.

생산양식 면에 있어서는 야채, 과일류 등의 상업작물, 사료작물인 수수 등의 생산에 근대기술을 접목한 선진농업과, 식량작물인 옥수수와 두류를 생산하는 전통적 농업방식이라는 이중구조가 존재한다. 경영구조를 살펴보면 개인영농 형태의 대규모농업과 공동체 ‘에히도’와 ‘원주민공동체’의 두 형태<sup>3)</sup>라 불리는 소규모 영세농업의 이중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경지면적 면에서 개인경영농가의 비율은 약 51%, 공동체가 약 49%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북부지역의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현대화된 거대 기업농과 남부 지역 중심의 천수답을 이용한 전통적 재배 방식에 의존하는 가족농이 병존하고 있으며, 두 지역간 생산량은 최대 3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농가의 82%는 아직도 20년 전의 재배방식을 따르고 있다.

---

2) 1519년 스페인에 의한 정복 이후 300여년에 걸쳐 멕시코는 광업경제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었으며, 농업은 기간산업인 광업경제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토지의 분배 과정에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 ‘아시엔다’(Hacienda)라는 대토지소유제가 정착되었다.

3) 에히도는 대체로 20여개 이상의 가구로 구성된 촌락공동체이다. 오늘날에는 구역내 토지의 판매 및 구입 그리고 민간투자자들과의 합작도 가능하다. 1991년 현재 토지 소유 형태는 개인소유가 40%, 50%가 에히도와 지역공동체 소유이다. 현존하는 에히도 수는 모두 2만8천개이며, 주로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은 1986년 9월 GATT 가입을 계기로 자유무역주의체제로의 전환, 1990년대 시장개방의 가속화 그리고 1994년의 NAFTA 발효로 인해 농업의 전반적 부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었다. 즉 성급한 시장 개방과 폐소화의 과대 평가, 유통 시설 및 농촌하부구조의 미비는 주식인 옥수수를 비롯하여, 강남콩, 밀 등 주요 작물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였다.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선진국들은 농업 부문에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하였으나, 멕시코의 경우에는 재정과 인플레이션 문제로 농업 부문 촉진 프로그램을 감축 내지 폐지하였다.

농촌지역의 뿌리깊은 이중구조와 빈곤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남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1994년 남부 치아파스주의 농민봉기<sup>4)</sup>는 외환위기 발생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하였다(Roger Burbach 외, 1994).

## 2. IMF 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

1994년 12월 발생한 외환위기는 폐소화의 급락을 야기하였으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류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농업투입재의 인상 등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상실케 하였다. 재정긴축으로 농업 투자는 감축 내지 선별 투자로 전환하였으며, 이자율 상승은 농가 부채 급증, 영농의지 약화 및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였다. 환율상승은 옥수수, 콩 등의 수입농산물과 농자재 가격 상승을 야기하였으

---

4)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는 인구의 75%가 생존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절대 빈곤층이 지배적이며 1/3은 신교를 믿고 있다. 멕시코 총인구의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1의 커피 수출지역이기도 하다. 농지의 50%가 에히도 혹은 공동체 소유이나, 지역의 대다수 영세농과 원주민들은 버려진 땅이나 비관개화된 땅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농민봉기는 1994년 3월 2일 정부의 대응책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곧 이어 3월 23일 집권당 대통령 후보인 꼴로시오가 북서부 국경도시에서 선거 유세 중 암살되었고, 1994년 12월 19일에는 또 다시 치아파스주의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이 '가난과 선거부정'에 대항하여 군사적 행동의 재개를 발표하는 등 심각한 정정 불안에 휩싸이면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드세게 나타났고 결국 1994년 12월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

며, 반면에 환금성 작물인 야채류, 과일류, 커피 등의 수출은 증가하기도 하였다.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부문 변화로는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농업성장률의 둔화, 곡물생산량의 감소, 이농 현상의 둔화, 농가의 실질 소득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OECD, 1998: 30~42). 다음의 표는 농업의 배경과 IMF 체제가 농업에 미친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IMF 관리체제하의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 및 대응 방안

농업 배경	농업부문 파급 효과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구조상의 문제 상존: 근대화 영농과 전통 영농이라는 생산양식과 경영규모의 이중구조</li> <li>○ 성급한 개방화와 계몽 미비로 수출경쟁력 저하 및 농민들 불안 가중</li> <li>○ 농업인프라 미흡</li> <li>○ 유통 채널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긴축: 농업투자 감축 및 선별 투자</li> <li>○ 이자율 상승: 농가부채 급증, 영농의지 약화, 생산비 증가</li> <li>○ 환율상승: 주곡인 옥수수, 콩 등 수입농산물 가격 상승, 야채류·과일류·커피 수출 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li> <li>○ 경제성장 둔화: 농업성장률 감소, 농업생산량 감소, 농촌인력의 타산업으로의 유출 감소, 농가실질 소득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단기 투자 전략 수립 및 민간투자 유치</li> <li>○ 금융지원: 미지급 부채 재조정, 새로운 신용기금 조성</li> <li>○ 국내 식량 증산을 통한 수입 감소 및 수출 증대</li> <li>○ 농업인프라: 도로, 통신,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 관개시설 확충, 교육 등에 민간투자 유치</li> <li>○ 소득증대: 직불제, Alianza para el Campo 등으로 소득 보전</li> <li>○ 농업의 이중구조 개선</li> </ul>

자료: 필자 구성, 1998.

### (1) 농산물 생산

농업성장률은 IMF 파고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995년에 -3.8%를 기록하였으나, 1996년에는 1.2%로 회복하였다. 1997년 상반기에는 5.8%의 성장(특히 2/4분기에는 10.4%)으로 1981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농업성장률이 회복되고 있으나 1995년과 1996년의 농업생산 지수는 여전히 1981년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는 1982년 외환위기로 인한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농업생산기반의 침체에 기인하였다. 1996년의 곡물생산은 2,685만 톤으로 2,800만 톤을 기록한 1981년의 96% 수준이었다. 곡물생산량 중 주식인 옥수수는 1,730만 톤으로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과실류 생산은 1,218만 톤이다. 1996년의 1인당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19.6% 감소(1995년에는 전년대비 16.5%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요 식량작물생산량의 경우 1981년과 비교해 볼 때 32.4%가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금융·외환위기 이후 옥수수과 밀 생산은 위축되었으며, 쌀, 야채류, 콩 생산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곡인 옥수수의 자급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NAFTA 발효 이후 무관세 수입에 따른 수입육류와의 경쟁과 IMF 체제 이후 사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생산이 감소되었다.

야채류의 경우 미국과의 북경지대에 위치한 '마길라도라(보세가공 무역지대)'에서의 미국 자본과 기술 그리고 멕시코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는 농산복합체를 중심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포장, 가공 면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즉 IMF 체제하에서 폐소화의 평가절하는 과일, 야채 등 고부가가치 상품위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면서 수출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리 상승, 임금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은 영세한 농업부문에 영향을 끼쳤다. 가공식품 생산업체의 경우 인수 및 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대기업화하여 소규모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합병되었다. 특히 외국기업의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 (2) 농산물 소비

멕시코는 1970년 이후 곡물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1인 1일 영양공급량은 주로 곡류(에너지는 약 83%, 단백질은 약 60%)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주식인 옥수수의 자급률은 90%수준으로 옥수수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정부는 옥수수 등의 기본 소비에 대해 소비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 소비지출 중 식품비의 비중은 1980년과 동일한 수준인 36~37%로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질소득의 감소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995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경기위축은 과일, 육류 등에 대한 소비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는 바, 육류 소비는 1995년에 전년 대비 15%가

감소하였으며, 가금류 소비는 60% 감소하였다. 이는 식료품류의 가격이 44% 인상된 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 (3) 농가부채

IMF 관리체제 하에서 신용대부 경색, 금리 인상, 농업경영비 상승, 소비 위축은 농가의 부채를 급증시켰으며, 채무 변제 능력의 상실이 발생하였다. 1988년의 농업융자액 대비 미상환 부채의 비중은 2%이었으나 1995년에는 15%에 달했다. 1998년 현재 농가 부채는 총 30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곡물총생산액의 50% 혹은 1년치 농산물 수입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의 영농자금 지원금리는 여전히 외국계은행 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태이며, 자금도 주로 대규모 농가가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농업금융의 기조를 보조 중심에서 점차 융자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4) 농산물 교역

전통적인 교역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수출의 88%, 수입의 70% 점유함), NAFTA 가입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양국간 품목별 교역구조는 야채 및 과일을 수출하고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과 유지종자 수입이라는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 1989~1994년 기간 중 수입신장률은 수출신장률을 초과하였으며, 1994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OECD, 1996).

외환위기 이후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1995년의 수출은 전년대비 95%가 증가하면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14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는 전년도의 극심한 가뭄과 경제회복에 따라 곡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이 급증하여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품목별 무역 동향을 보면 과채류와 커피는 주요 수출상품으로 성장하였고, 생축의 경우는 미국의 GSM<sup>5)</sup> 지원으로 종축을 수입하고

5) 미국 농산물의 대개도국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미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 미국

비육용 송아지와 도축용 비육우 등을 수출하고 있다. 가금육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수입 양상을 띄고 있으며, 1995년에는 폐소화의 폭락으로 수입이 급감하였다(Promer International, 1997).

#### (5) 외국자본의 진출 가속화

농축산업체의 구조조정은 NAFTA 체결 이전부터 이루어졌으나, 금융·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가공업체의 도산 및 합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양계와 냉동야채 가공회사의 폐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양계 가공회사인 DESC사의 경우 연 매출액이 2억 달러로 멕시코 제 3위의 농축산업체였으나 시장의 수요 위축을 이기지 못하고 1995년에 폐업하였다. 또한 1988년 39개에 달했던 냉동야채 가공회사는 1995년 말에 19사로 감소하였다. 미국계 다국적기업인 Purina사, 영국과 네델란드 합작회사인 Anderson-Clayton사 등은 멕시코의 사료시장을 장악하였다.

과일, 야채 등 노동력 투입이 많은 부문에서는 IMF 체제 1년이 경과하면서 임금 수준의 점진적 하락과 환율 상승 등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국내 수요 위축을 극복하고 수출증대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대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의 16%를 점유함으로써 자동차 부문(20%)에 이어 제 2의 투자 대상 부문이 되었다.

### Ⅲ. IMF 관리체제 전후의 농정변화

#### 1. 농업관련 부서 및 주요 프로그램 운용

멕시코의 농업정책 입안과 시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경제관련부처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하의 기능별·품목별 국영기업이

---

상품신용공사(CCC)가 신용장 발행 은행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사업이다.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인수 및 합병, 해체, 민영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1995년 농업농촌개발부(SAGAR)는 기존의 SARH(농업수자원부)를 개칭하였다. 이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부문과 농촌 부문을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신정부의 의지에 기인하였다. 조직은 축소하여 3개청(농축산청, 경제기획청, 농촌개발청) 11개국으로 재편되었다. 인원 중 85%는 주정부와 농촌개발지도소<sup>6)</sup>(DDRs)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SAGAR는 여러 국영공사를 관리 감독하였으나, IMF 이후 그 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다. 1995년 SAGAR가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국가 기초식량조달공사인 CONASUPO<sup>7)</sup>, 농산물유통관련 서비스와 직불제를 운영하는 ASERCA<sup>8)</sup>, 위험재분배신용기금을 운영하는 FIRCO, 국립농축임업연구소인 INIFAP, Chapingo 농과대학 등이다.

- 
- 6) DDRs는 1993년 현재 32개 주에 193개가 산재되어 있다. DDRs 산하에는 모두 708개의 '농촌개발서비스센터'를 두어 대농민 기술지도, 신용대부, 투입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 차원의 농업 관련 문제에 관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7) CONASUPO는 1965년에 공업화 추진을 하면서 도시 주변과 농촌지역에 저가로 식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전국적인 식품 중·소매업을 관장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다. CONASUPO는 국내 구입분과 수입분을 구입가 이하(저장, 구입, 운송비용은 공사 부담)로 자회사 혹은 민간 재분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외에도 CONASUPO는 저장, 식품가공, 기술지도, 도·소매유통업,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수많은 자회사를 지니고 있음.
  - 8) ASERCA는 1991년 설립된 이래 밀, 수수, 쌀, 채유종실류 등의 유통을 지원하고 면화, 과일, 채소류 등의 수출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이다.

〈표 3〉 농업정책 관련 정부 기관, 소속 공사 및 주요 사업  
내용: 1995

정부 기관	소속 공사	주요 사업 내용
SAGAR (농업농촌개발부)	CONASUPO ASERCA COAAZUCAR FIRCO INIFAP Chapingo University INCARURAL	옥수수, 콩의 소비자 보조 및 농촌지역곡물저장(BORUCONSA*) 직불제 운영(PROCAMPO) 및 유통, 촉진 계당 유통 신용 및 기술지도 연구 교육 기술지도 및 훈련
SRA (농지개혁부)	INDA RAN PROCEDE	기술지도 및 훈련 국가토지등기소 에히도 소유권 증명 프로그램
SECOPI (상공진흥부)		무역수단, 소비자가격 조절
SEMARNAP (환경자원어업부)	INE CNA PROFEPA	국립생태연구 관개 환경규제
SEDESOL (사회개발부)	DICONSA LICONSA FIDELIST CONAZA INI	소매업 유제품 유통 옥수수 토르띠야 쿠폰제 건조지역 농촌개발 원주민 공동체 기타 SEDESA는 빈곤퇴치기금 운용
SHCP (재무공공신용부)	AGROSEMEX BANRURAL FOCIR(NAFIN의 개칭) ANDSA*	보험 신용 유통 및 판매 촉진 곡물저장
	FIRA	농업신용기금은행

\* 민영화 추진 중.

자료: OECD Secretariat, 1997.

농지개혁부는 농지소유제의 개혁과 에히도의 소유권 문제 해결 및 에히도 소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의 매도와 임차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상공진흥부는 무역정책과 도소매 식품가격의 상한선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자원어업부는 관개 및 환경규제를, 사회개발부는 각종 빈곤퇴치기금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재무공공신용부는 공공기관에의 예산 이전 -국립농촌신용은행(BANRURAL), 멕시코 농업보험공사(AGROASEMEX), 국가개발은행(NAFIN)에 의해 이루어지는 농촌투자기금(FOCIR)-을 집행한다. 1994년까지 멕시코 국립은행(BANXICO) 산하에 속했던 농업신용기금재단(FIRA)은 1995년 독립되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농업부문의 문제 해결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구와 프로그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1995년 6월에 정부는 농업관련 행정 부처,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처간 농업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농업개선동맹'(APC:Alianza para el Campo)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부문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처간 농업발전기획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대통령농업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며 '대통령농업자문위원회'는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결정을 관장하고 있다.

'APC' 프로그램은 생산, 소비, 유통 그리고 품목별 지원을 위한 수십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통합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http://www.sagar.gob.mx/users/Firco/>). 핵심 목표는 옥수수를 비롯한 콩, 수수 등의 기초작물 증산; 휴경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는 등 20% 이상의 신규 경작지 확보; 목초지와 산악 저지대를 농지로 전용; 농촌인프라의 재정비; 새로운 관개농지 건설; 단보 당 이윤 극대화 등이다.

한편 농가부채 재조정을 위해서는 1994년에 도입된 SIRECA (System for the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Overdue Portfolio)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전체 미지급 부채액의 98%에 대해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조건을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농가 소득의 보전 및 영

농 의욕의 증진 차원에서 직접지불제(PROCAMPO)의 운영과 확대 실시를 본격화하였으며, 1988년 살리나스 정부에 의해 구성된 '노·사·정·농 협의체(PACTO)는 사회구성원간의 협의체로 농민을 경제발전의 동반자로 간주하여 화합과 변형을 위한 국가발전계획에 참여시키고 있다.

〈표 4〉 IMF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관련정책의 변화

	정 책 의 목 적	비 고
부처간 농업발전기획위원회	'국가개발계획: 1995-2000' 농업부문 기획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농업재건을 위한 동맹' 프로그램 탄생: APC: Alianza para el Campo)	1995.7. 발족
대통령농업자문위원회	주요 농업정책의 결정	기존 기구
PROCAMPO	직불제프로그램의 시행(1994년)	1995년 확대
PRONASOL	국민연대프로그램의 재원으로 '빈곤경감프로그램' 운용	1988년 발족 1995년 확대
SIRECA	농업부채조정프로그램	1995년 실질 운영
PACTO	노사정농협의체로 물가안정을 통한 국가경제 안정을 도모함. 1988년 구성된 이래 매년 국가정책의 목표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음.	1995년의 경우 '경제재건을 위한 국민동맹'

## 2. 농업정책의 변화

### (1) IMF 관리체제 전후의 농업정책 변화

1940년대~60년대 중반까지 국내식량공급은 수요를 초과하였으나, 1960년대 들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자 농업부문은 소외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식량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였다. 농업부문은 산업화에 참여하지 못한 유휴 노동력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다. 이어서 발생한 1976년과 1982년의 외환위기는 농업생산기반을 와해시키었다.

진정한 의미의 농업정책은 1983년 이후에야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농업관련 국영기업의 구조조

정도 축소, 합병, 해체 등의 수단을 통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 십년간 지속되어 온 농업기반의 붕괴를 경제난 속에 개선시킨다는 것이 무리였다. 특히 비료, 보험 등의 투입비용의 감축, 농업신용 확보의 어려움, 높은 인플레이와 금리 등은 생산성 향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했다.

1989년~94년에는 농업부문의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개방경제체제의 가속화 흐름에서 식량수입은 식량수출에 비해 3배 이상 빠르게 신장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전체 노동력의 약 1/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농업구조조정 은 경제 및 사회문제로 확산되었고, 농촌 빈곤에 대한 대비책 요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농업정책은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PROCAMPO를 통해 작물에 대한 가격지지제를 농가 소득 보전 차원의 직접지불제<sup>9)</sup>로 전환한 것은 농업정책의 시장지향성 증대, 친환경농업의 도모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의 변화였다. 또한 시장개방이 추진되면서 농업관련 국영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와 구조조정도 시작되었다.

이 같은 농업정책은 1995년 말 IMF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표된 '국가개발계획: 1995~2000'하의 농업 프로그램인 '농업재건동맹: 1996~2000'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농정의 기본 성격은 주곡인 옥수수를 비롯한 식량 증산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교육 등을 통한 농민복지 증진에 있다. 또한 농정의 목표는 가족농 중심의 규모화 촉진; 경영규모의 이 중구조 개선 및 농지제도 개혁; 주곡인 옥수수 증산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 농촌생활 여건 개선 및 다양한 농가 소득원 개발; 대농민 지도·훈련으로 개방경제

9)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s to Producers)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현물지급, 징수감면 포함)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로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이 아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일부 시행 중이며, 향후 쌀 농사 및 환경보전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직접지불제는 가격지지와 같이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해 오던 것을 줄이고 납세자(정부재정)의 직접적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는 생산에 대한 왜곡효과도 있지만 가격정책보다는 적다.

체제하의 기회 창출 및 도전 의식 함양; 농촌인프라(도로, 수도, 하수 처리장, 전력, 통신 등) 확충;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유통 채널 구축 등이다.

## (2) 농업정책 수단의 변화

IMF 위기 하에서 보편화되는 개방경제체제 환경에 대비하여 농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정부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과거의 농업정책 수단은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으로 가격과 소득지지정책을 무역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직접지불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농촌인프라, 연구, 교육, 유통 등으로의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관련된 예산 규모는 1989~94년의 경우 GDP의 3%(OECD 국가 평균은 2%임) 수준이었으나, 이후 IMF 위기와 시장 가격지지 수준의 축소로 예산은 감축되었다. 1995년 농업세출예산의 각 항목 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가격 및 소득지지 35%, 투입비용 보전 21%, 일반서비스 15%, 소비자보조 20%, 정규교육 6.5%, 농촌개발 2% 등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격 및 소득지지 항목에서 시장가격지지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직접지불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79%를 점유하고 있다. 투입비용 보전 항목은 이자보전 항목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나, 거의 전 항목이 감소하고 있다. 일반서비스 항목은 농업구조·농촌인프라가 62%, 연구·교육·농촌지도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역시 전체적으로 감축되었다. 소비자 보조 항목에서는 CONASUPO가 50%, LICONSA가 40%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교육에서는 직업농업학교가 42%, CHAPINGO 농과대학이 21%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농촌개발 항목은 PRONASOL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표 5〉 농업정책 세출예산 내역

(단위: US\$ 백만)

항 목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p	재 원
가격 및 소득 지지	676	921	391	749	835	2180	1205	
a) 시장가격지지	674	919	352	407	616	510	253	
CONASUPO(Stockholding)	334	828	299	346	332	458	228	SHCP0.3
AZUCAR S.A	223	49	0	0	0	0	0	SHCP
b) 직접지불	2	2	342	342	219	1670	952	SHCP
PROCAMPO	0	0	0	0	0	1431	913	SHCP
ASERCA	0	0	338	338	216	235	27	ASERCA
재양 지불	2	2	4	4	3	4	12	CONASUPO
투입비용 보전	2011	2553	1434	1283	1663	1545	716	
a) 이자 보전	821	522	601	700	840	536	248	SHCP
b) 비료(FERTIMEX/ASERCA ir65)	237	262	294	153	0	0	11	SHCP
c) 보험(ANAGSA/AGROASEMEX)	498	579	0	24	28	65	31	SHCP
d) 농업장수	365	415	379	299	241	376	213	SHCP
e) 사료	77	765	117	102	541	532	194	SHCP
f) 종자(PRONASE/ASERCA)	5	3	36	2	0	0	0	SHCP(ASERCA 92)
g) 살충제(면화)	0	0	0	0	13	36	19	ASERCA(SHCP 95)
h) 농기계류(SESA)	7	6	2	0	0	0	0	SHCP
i) 육종(ROGAN)	1	1	4	3	0	0	0	SHCP
일반서비스	541	782	727	1003	943	1232	498	
a) 연구/교육/농촌지도	102	168	191	241	257	276	147	SHCP
b) 해충 및 질병 감독	11	12	16	39	35	30	12	SHCP(SAGAR)
c) 농업구조/농촌인프라	415	594	457	625	498	876	310	SHCP partim
d) 유통 및 홍보	13	7	62	98	153	51	29	SHCP
소비자보조	1173	1564	1294	1594	1415	1173	678	
LICONSA(우유)	368	303	427	469	438	370	269	
CONASUPO/FIDELIST(옥수수 모르타야)	103	92	155	167	118	119	73	
ASERCA(밀)	0	0	0	127	252	147	0	ASERCA(SHCP 95)
CONASUPO(곡물, 두류, 채유종실류)	702	1169	582	704	699	537	337	SHCP0.7 partim
정규교육(농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직업학교 등)	224	227	262	292	367	402	224	SHCP
농촌개발	13	9	11	152	158	114	72	
PRONASOL(원주민공동체)	0	0	0	11	24	31	13	SHCP
기타 국가사업(PRONASOL)	0	38	33	51	59	58	31	SEDESOL
농업세출예산(1)	4637	6094	4151	5124	5441	6704	3423	
연방정부 세출예산(2)	46413	48279	48775	52963	59449	65271	45370	
% (1)/(2)	10	13	9	10	9	10	8	

자료: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1997.

품목별 농업정책 수단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크게는 생산자 보조정책과 소비자 보조 정책으로 대별된다. 생산자 보조 정책으로는 시장가격지지의 수단으로 생산자보증가격<sup>10)</sup> 혹은 협정가격<sup>11)</sup>, 직접지불제 그리고 무역수단을 들 수 있으며, 소비자 보조 정책으로는 소비자 보조금과 소매가격 상한제의 운용 등이 있다.

〈표 6〉 멕시코의 품목별 농업정책 수단: 1995

작물명	생산자 가격 및 소득지지 수단						소비자 지지수단			생산기반개선을 위한 수단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제		무역수단 <sup>2)</sup>		소비자보조금		소매가격상한제		
	CONASUPO 최저 가격	협정 가격	PACE 유통 보조금	ASERCA 유통 보조금	PROC AMPO 지불 <sup>1)</sup>	NAFTA	UR3	사회 프로그램	기타 <sup>4)</sup>		
옥수수	○		○		○	Q	TQ	○	○	○	투입보조: 이자율 양허, 유통세 양허, 보험, 양수시설
강남콩	○				○	Q	TQ		○		
밀					○	T	TQ		○	○ <sup>5)</sup>	
보리					○	Q	TQ				
수수					○	Free	T				
쌀				○	○	T	T				일반보조: 연구, 교육, 기술지도, 병해충 통제, 농촌인프라, 유통 및 판매 촉진
콩					○	Free	T				
사탕수수		○				Q	TQ			○ <sup>5)</sup>	
목화					○	T	T				
커피						T	TQ				
담배						T	T				토지소유제 개혁: 토지시장의 발달 도모
과일 및 채소류						Q/T/Free	T				
우유						Q	Q	○		○	
쇠고기						Free	T				
돼지고기						T	T				
닭고기						Q	TQ				
계란						Q	T				

주: 1) 1995년의 경우 위의 작물 외에도 홍화에도 확대되었음. 1996년부터는 모든 작물, 축산, 조림, 환경보전 프로그램하의 농지로 확대 운용하고 있음.

- 10) 생산자보증가격(Guaranteed Prices)은 CONASUPO가 직접구입, 수입허가 물량 조절 등의 방법으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를 시행하는 것이며, 이는 낮은 가격으로의 소비자 가격 유지 목적이 있다.
- 11) 협정가격(Concerted Prices)은 CONASUPO가 생산자보증가격을 통한 보조를 중단한 품목에 대해 일시적인 방법으로 연방정부가 중재하는 생산자와 구매자간의 협정된 가격을 말한다.

- 2) (Q)는 무관세 수입 쿼타, (TQ)는 50% 할당 관세, (T)는 수입관세 그리고 (Free)는 무관세 수입을 의미함.
- 3) UR 이행 계획임.
- 4) 농업생산물에 대한 첫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정부 보조임.
- 5) 밀과 설탕의 경우 1995년 말 폐지되었음.

자료: OECD Secretariat, 1997.

1995년에는 민간유통부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한편 주곡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가격제(Minimum Price)를 옥수수과 강남콩에 도입하였다. 밀, 수수, 쌀, 콩, 채유종실류에 대한 협정가격은 철폐되었으며, ASERCA 유통보조금은 쌀에 국한하였다. 한편 정부는 옥수수, 밀, 수수, 콩 등의 생산자에게는 수출촉진을 장려하는 한편 국제시장환경에 적응할 것을 권고하였다.

CONASUPO는 1980년부터 여름 옥수수와 강남콩의 경우 비관개 지역에서 재배하는 '에히도스'에게 PACE(Programme to Support the Marketing in Ejidos)프로그램을 통해 포장, 운송, 지역내 판매 등에 대해 유통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 보조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한 소비자가격상한제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포르띠야 용 옥수수, 20Kg 용 옥수수 전분, 1ℓ 병 우유 등 국민 기초식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격상한제가 철폐되었다. 특히 포르띠야 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CONASUPO 는 '포르띠야 보조신용기금'(FIDELIST)의 지원을 받아 바코드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Smart Card)제를 도입하여 빈민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즉, 멕시코 국민의 주식인 옥수수의 경우 CONASUPO를 통한 가격지지, PACE 유통보조 및 직접지불제의 수혜를 받고 있어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작물임을 알 수 있다. 직접지불제는 많은 작물-옥수수, 강남콩, 밀, 보리, 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직접지불제는 그 범위를 모든 농작물 및 축산업, 산림업 그리고 환경보호지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지불제 시행 첫해인 1994년의 직접지불제 예산은 농업예산의 27%에 달했다. 1995년에는 면적기준

으로 ha 당 70달러가 지불('94년은 62달러)되었고, 작물별로는 옥수수에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콩, 수수 순 이었다. 1996년에는 향후 15년까지로 시기를 정하였다(OECD b: 36~37).

면적별 직접지불을 살펴보면 2~5Ha(실제 경작규모는 1Ha 미만이 대부분임)가 가장 많았으며, 5~10Ha, 1~2Ha 순 이었다. 직접지불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민은 경작지의 소유인 혹은 임차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재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DDRs는 농민, 농민조직단체, 관련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승인 및 사후감독을 맡게 된다. 지불은 수표, 어음, 거래은행으로의 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무역수단의 면에서도 옥수수, 강남콩, 보리, 우유, 닭고기, 계란 등은 NAFTA 회원국으로부터 쿼터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수, 콩, 일부 과채류 및 쇠고기는 무관세 수입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생산기반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입보조, 교육 및 유통개선을 위한 일반보조 및 토지소유제의 개혁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

### (3) 기타 중장기 대책

이외에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바 단기 대책으로는 농가부채 재조정, 채무지불 능력 함양, 기존 하부구조의 정비 및 소규모 하부구조 건설 등이며, 중장기정책으로는 농지구묘화 사업, 도로·통신·관개설비 등 농촌하부구조 확대, 산지와 소비지간의 유통시설 확충, 새로운 농가 수입원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구매력 증진 등이다.

중장기정책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정부 차원의 직접투자 확대와 더불어 농민단체와 연계한 공공사업의 확대 및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기타 정책으로는 주요 작물의 가격지지체도의 탄력적 운용, 개도국 지위를 이용한 고율관세 부과, 긴급구제조치 등 제반 조치의 활용, GDP의 2%에 달하는 농업신용기금 마련, 보험제도(작물 및 재해보험 등)의 보완 및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담보 능력 유무에 따른 신용대출의 다

양한 형태를 개발·운영할 것이며, '에히도스'에 대한 과세 면제 등 세제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1차산업 부문에의 기업 재투자는 법인세를 면제받게 되며, 기초 식량과 농업투입재(농기계, 비료 등)의 판매 및 관련 용역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투입재의 수입에 대한 수입허가제 혹은 수입관세가 철폐되었고, 연료비 역시 보조되었다. 이외에도 관개설비 확충 및 사료구입비 보조가 시행되었다.

#### IV. 시사점

멕시코와 우리 나라 양국간 교역에 있어 우리 나라는 연간 1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멕시코는 우리 나라에 대해 자국산 과일 및 육류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 나라와 농업구조가 상이한 면(주곡 생산 기반, 주식의 자급율, 농촌 인프라, 시장경제에의 참여 정도 및 농민 의식 수준)도 있으나 성급한 개방화와 대농민 계몽이 미흡한 가운데 빠르게 진행된 무역자유화체제로의 전환으로 농업농촌부문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향후 시장지향적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 앞서 IMF 관리체제 하에서 멕시코 농업부문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생산기반이 일단 침체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농업생산기반의 정체는 주곡인 옥수수를 비롯해 곡물순수입국으로 전략케 하였다. 멕시코의 농업은 19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구조조정 및 농업금융 등 개혁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업생산량도 1996년에 와서야 1981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결국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대책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특히 주곡의 안정적 공급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다.

둘째, 멕시코는 외환위기 이후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국가개발 계획: 1995-2000'과 같은 거시적인 국가경제개발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거시경제정책과 농업부문의 개혁이 독립적이며 비연속적일 때 1982년의 사례가 주는 교훈처럼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농업 부문의 정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압박은 농업정책 수행에 영향을 끼치므로 단기적으로는 일관되고 우선 투자순위가 고려된 농업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작물·재해 보험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

셋째, 환율 상승에 따른 농산물 수출은 단기적으로 수출을 위한 호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수출 작물의 생산 및 마케팅 그리고 수출지역의 다변화 노력 등 농산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반면에 사료, 농약, 종자 등 농업투입재와 식품가공품 원료에 대한 해외의존도는 높아 이들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원료의 자급률 제고 노력도 요구된다.

넷째, 멕시코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요인에 의해 국내업체의 도산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투자 환경과 기술 도입을 조성하는 한편 독과점을 막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안보나 공공재 공급 분야 그리고 유전자 보전 등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멕시코의 경우 경제안정과 고통분담 노력을 위해 사회구성원간 협의체에 농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국민과 더불어 공유하고, 국민들의 농업 재인식 고취를 위해, 농업인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농민 혹은 농민단체를 노·사·정 협의체에 한시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직접지불제의 도입 및 실행이다. 멕시코는 주곡인 옥수수를 비롯해 기타 기초 식량 및 축산과 산림부문에 까지도 그 시행범위를 확대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영농규모화와 친환경농업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향후 그 범위

를 축산과 산림부문 그리고 환경보전에 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멕시코의 경우 1994년 농민봉기가 외환위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후 정부는 농업관련 정부 부처, 상·하의원, 지자체 단체장, 농민 단체가 참여하는 '농업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부문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농간의 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APPENDIX

- AGROASEMEX 국립농업보험공사 (Mexican Agricultural Insurance Company)
- APC 농업재건동맹 (Alianza para el Campo)
- ANDSA 국립곡물저장회사 (National Stores)
- ASERCA 국영농산물유통공사 (Support Services for Agricultural Marketing)
- BANRURAL 국립농촌신용은행 (National Rural Credit bank)
- BANXICO 국립은행 (Bank of Mexico)
- CADER 농촌개발서비스센터
- CNA 국가수자원위원회 (National Water Commission)
- COAAZUCAR 제당산업위원회 (Sugar Industry Committee)
- CONASUPO 국가기본식량공사 (National Basic Foods Company)
- CONAZA 국가건조지역농업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Arid Zones)
- DDRs 농촌개발지도소 (Rural Development District)
- DICONSA CONASUPO 유통회사 (CONASUPO Commercial Distribution and Promotion)
- FIDELIST 토르띠야보조신용기금 (Trust Fund for the Liquidation of the Tortilla Subsidy)
- FIRA 농업신용기금 (Trust Fund for Agriculture)
- FIRCO 위험재분배신용기금 (Trust Fund for Shared Risk)
- FOCIR 농촌투자기금 (Rural Sector Capitalization & Investment Fund)
- INCARURAL 국립농촌기술교육원 (National Institute of Training in Rural Areas)
- INDA 국립농지개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Agrarian Development)
- INE 국립생태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INI 국가원주민공동체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Indigenous Communities)

INIFAP 국립농축임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For-Agri-Live Research)

LICONSA CONASUPO 유제품회사 (CONASUPO Industrial Milk)

NAFIN 국가개발은행 (National Development Bank)

PACE 에히도스 유통지지프로그램 (Programme to Support the Marketing in Ejidos)

PROCAMPO 농촌직접지불프로그램 (Programme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

PROCEDE 에히도 토지소유권 등기 프로그램 (Programme for the Certification of Ejido Property Rights)

PROFEPA 연방환경보존사무국 (Office of the federal Attorney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PRONASOL 국가연대프로그램 (National Solidarity Programme)

RAN 국립농지등기소 (National Agrarian Registry)

SAGAR 농업농촌개발부 (Secretaria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M 멕시코식량기구 (Mexican Food System)

SARH 농업수자원부 (Secretariat of Agriculture & Water Resources)

SECOPI 상공진흥부 (Secretariat of Commerce and Industrial Development)

SEDESOL 사회개발부 (Secretariat of Social Development)

SEMARNAP 환경자원어업부 (Secretariat of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 Fisheries)

SHCP 재무공공신용부 (Secretariat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SIRECA 농업부채재조정계획 (System for the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Overdue Portfolio)

SRA 농지개혁부 (Secretariat of Agrarian Reform)

## 참고문헌

- 최윤국, 「멕시코의 경제구조와 전개과정」, 『중남미문제연구』, 제12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1994.
- 이전, 『라틴아메리카 지리』,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72, 민음사, 1994.
- Burbach, Roger & Rosset, Peter, *Chiapas and the Crisis of Mexican Agriculture*, Internet, 1994.
- Calva, Jose Luis, “La economia nacional y la agricultura de Mexico a tres anos de operacion del TLCAN”, NAFTA 3 국간 투자 세미나 자료, 1996. 11.
- Chavez, Luis Felipe, *Privatization of Mexican Ejidos*, <http://www.aad.berkeley.edu/95journal/LuisChavez.html>, 1995.
- EIU, *Business Latin America*, 1995.10.31.
- LAN, Economy & Business Reports: 멕시코 정부 보고서, 1995.12.
- Margadant, G.F., *Introduccion a la Historia del Derecho Mexicano*, 일본어판, 아시아경제연구소, 1993.
- OECD, MEXICO, OECD Economic Surveys, 1995.
- OECD, *Economic Survey: Mexico*, Paris, 1996.
-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1997.
- OECD, *OECD Observer*, No.206, June/July, 1997.
- OECD, MEXICO, OECD Economic Surveys, 1998.
- Pichardo, Andres Rosenzweig, *The Mexican Agriculture in the Context of NAFTA*, 1996.
- Promer International, *US Agricultural Export Experience with NAFTA*, 1997.
- Schwentesius, Rita. “La cartera vencida del sector agropecuario”, Internet 제공, 1996.5.

## Internet Web Site

<http://www.sagar.gob.mx>(멕시코 농림부):

[organigrama/sagar.htm](http://www.sagar.gob.mx/organigrama/sagar.htm); [eventos/proyecto.htm](http://www.sagar.gob.mx/eventos/proyecto.htm);  
[users/firco/mecaniza.htm](http://www.sagar.gob.mx/users/firco/mecaniza.htm);

<http://www.shcp.gob.mx>(멕시코 재무부):

[esp-ind.html](http://www.shcp.gob.mx/esp-ind.html)

<http://www.banxico.org.mx>(멕시코 중앙은행):

[mexi2000.htm](http://www.banxico.org.mx/mexi2000.htm);

[public\\_html/inveco/infecon/cuadros/civ-2.html](http://www.banxico.org.mx/public_html/inveco/infecon/cuadros/civ-2.html);

<http://www.inegi.gob.mx>(멕시코 통계청):

[estad/estad.htm](http://www.inegi.gob.mx/estad/estad.htm)

<http://daisy.uwaterloo.ca/~alopez-o/politics/chiapasagri.html>

<http://www.elpais.es/p/d/debates/pedro.htm>.

<http://www.maff.go.jp>(일본 농무성):

멕시코: 970720; 970425; 970510; 970805; 971005; 971020;  
971120; 971205; 971220; 980120; 980220;